

# 서울 방언에 대한 연구\*

李 周 行\*\*

## 目 次

1. 서론
2. 서울 방언의 특징
3. 결론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 방언의 음운문법·어휘 등에 대해서 고찰하는데 있다.

서울 방언은 1394년 태조가 조선 왕조의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긴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의 중심 언어의 구실을 하여 왔다. 서울 방언은 조선 왕조와 일제 시대를 거치고 625사변을 겪으면서 다른 방언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들어와 살게 되어 방언의 차용이나 인접 방언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순수성을 많이 잃었다. 그리하여 서울 방언만을 추출하여 기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서울 방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하여 매

\* 이 연구는 2000년 중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중앙대 교수

우 빈약한 편이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에서 서울 방언을 표준어의 근간을 이루는 방언으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방언이 다각도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다. 서울 방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적었던 것은 이 방언이 경기 방언과 상이한 점이 별로 없으리라는 방언학자들의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언에 대한 연구물로는 이승녕(1959), 李炫馥(1971a, 1971b, 1974, 1977), 崔鶴根(1963), 朴鍾守(1982), 權在善(1983), 김선철(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승녕(1959)에서는 서울 방언의 악센트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으며, 李炫馥(1971a)에서는 현대 서울 방언의 모음 음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李炫馥(197b)에서는 서울말의 모음 체계에 대해서, 李炫馥(1974)에서는 서울 방언의 리듬과 억양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李炫馥(1977)에서는 서울 방언과 표준어를 음성학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崔鶴根(1963)에서는 서울 方言圈의 形成과 서울 方言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고 있으며, 朴鍾守(1982)에서는 서울 방언의 音調型에 대해서, 權在善(1983)에서는 서울 방언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김선철(1997)에서는 서울 방언의 억양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물들을 통해 볼 때 그 동안에는 서울 방언의 음성과 음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울이 대도시화로 인하여 각 지역 방언의 집합지가 되어 서울 방언은 크게 오염되어 있다. 또한 서울 방언의 이상적인 제보자(informant)<sup>1)</sup>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적합한 제보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1997년 국립국어연구원이 발간한

2) 이 연구에서 서울 방언의 이상적인 제보자란 3대 이상 서울에 살면서 NORMs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NORMs'이란 Nonmobile, Older, Rural 등의 첫자와 Males의 첫 자와 끝 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서울에 태어나 다른 곳에 여행한 적이 없으며, 6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서울은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이며, 서울 사람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접촉하고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순수한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서울 토박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에 수록되어 있는 제보자 29명 중 A 그룹에 속하는 5명(무학자 1명, 보통학교 중퇴 1명, 보통학교 졸업자 3명)의 자연 발화를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sup>2)</sup>. 이 연구에서 제보자의 자연 발화를 연구 자료로 삼은 제보자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보자 목록

성명	나이	성별	출생지 및 성장지	거주 기간	최종 학력
igd	93세	여성	종로구 다동	700년 이상	보통학교 졸업
sjis	86세	여성	중구 회현동	미상	무학
cyg	76세	남성	종로구 팔판동	미상	보통학교 졸업
ims	73세	여성	종로구 이화동	5대째 125년간	보통학교 졸업
ohc	62세	남성	성동구 왕십리동	17대째 590년간	보통학교 중퇴

제보자 중에서 보통 학교 졸업자인 ays는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상업을 한 경력이 있고, bgm은 농업과 상업을 하고 기관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ays와 bgm의 발화를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2. 서울 방언의 특징

### 2.1 음운 특징

서울 방언의 단모음은 경기 방언과 같이 /이(i), 에(e), ऐ(ɛ), 위(ü), 외(ö), 으(i), 어(ə), 아(a), 우(u), 오(o)/ 10개이다. 이것들은 전·후 대립과 원순·비원순 대립 체계를 지닌다. 전설모음 /이, 위, ऐ, 외, 애/ 등은 후설모음 /으, 우, 어,

3) 1997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일러두기 VI쪽에서는 제보자를 다음과 같이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A그룹은 질문지와 자연 발화 작업에 참여한 제보자이고, B그룹은 질문지 작업에만 참여한 제보자들이다. A그룹에 속하는 제보자는 모두 15명이고, B그룹에 속하는 제보자는 모두 14명이다.

오, 아 등과 대립을 이루고, /이, 에, 애/와 /으, 어, 아/는 비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룬다. 그리고 /위, 외/와 /우, 오/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이룬다.

오늘날 서울 방언에서는 단모음 10개 중에서 /위, 외, 에, 애/ 등 4개는 동요하고 있다. 제보자 5명 가운데 ‘취’를 [çü]로 발음하는 이가 4명(cyg, igd, ims, ohc)이고, [čwi]로 발음하는 사람이 1명(sis)으로 ‘위’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이보다 많다. 그리고 ‘외국’의 ‘외’를 단모음 [외(ö)]로 발음하는 사람은 1명(cyg)이고, 그 나머지 4명 중 1명은 [외(ö)]와 [웨(we)]로(igd), 2명은 [웨(we)]로(ims, sis), 1명은 [왜(we)](ohc)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단모음 ‘위’와 ‘외’는 이중모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는 모두 [태(ɬe)]로 발음하는데, ‘테’는 [테(ɰe)]로 발음하는 이가 2명(igd, sis), [태(ɬe)]로 발음하는 이가 2명(cyg, ims), [tɰE]로 발음하는 이가 1명(ohc)으로 단모음 ‘애’는 대부분 단모음으로 실현되는데, 단모음 ‘에’는 ‘애’로 발음되거나 ‘에’와 ‘애’의 중간음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에’와 ‘애’가 서울 방언에서 다른 지역 방언에서처럼 합류되어 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 방언에서도 다른 중부 방언에서와 같이 장모음 [어:]가 [으:(ɣ:)]로 실현된다.<sup>4)</sup> ‘없어’를 제보자 5명 중 1명(cyg)만 [업써(ɰps'ɰ)]로 발음하고, 그 나머지 4명은 [음:써(ɣ:ps'ɰ)]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장모음 [어:]가 [ɣ:]로 실현되는 보기를 더 들어 보면 다음의 (1)과 같다.

(1) 거지[그:지], 덜하다[들:하다], 어른[으:른], 얻어[으:더]

이중모음 ‘에’와 ‘의’의 음가가 변하고 있다. ‘예절’의 ‘에’와 같이 음절의 초성에 자음이 오지 않으면 ‘에’가 [예]로 실현된다. 그런데 ‘계획, 식혜’ 등의 ‘계, 혜’와 같이 음절의 초성에 자음이 오면 ‘에’가 이중모음 [예]나 단모음 [에]로

4) 장음 /어:/가 [으:(i:)]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데, 장음 /어:/는 /으:/와 비슷한 [ɣ:]로 실현된다. ‘어른’은 [ɣ:ːn]으로 발음된다. 장음 /어:/를 [ɣ:]로 발음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부터이다. 서울 외에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도 이와 같이 발음한다.

실현된다.

- (2) 계시다[계시다](sjs), 계집애[기집애](sjs), 계획[계획/계획](igd/ohc), 기계[기계/기계](igd), 청계천[청계천](ohc), 식혜[시혜/시케](igd/sjs)

‘의자’에서처럼 단어의 첫 음절에 오는 ‘의’는 [의]나 [으]로 실현되고, ‘성의, 토의’ 등과 같이 둘째 음절에 오는 ‘의’는 [의]나 [이]로 실현된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는 [의], [에], [으], [이] 등으로 실현된다.

- (3) 가. 의자[으자/으 : 자](ims/cyg), 의장[으장](cyg)  
 나. 거의[거이](ims), 경의선[경이선](ims), 백의[배기](ims), 속내의[송내이](ims), 예의[예 : 이](ims), 혐의[허미](cyg)  
 다. 어떤 사람에게 집...(igd).  
 라. 경동시장에 토란이 동이 났대니깐(cyg).  
 마. 남으 집...(sjs)  
 바. 즈이 집사람이 그랬어요(cyg).

서울 방언의 자음 체계는 표면적 음성형에 의하여 실현되는 변이음을 제외하면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중부 방언의 자음 체계와 같다.

[표 2] 서울 방언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 조음법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폐쇄음	순환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순환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순한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서울 방언의 운소(韻素)로는 음장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말에서는 음장이 동요하고 있다. ‘개나리[개 : 나리]’를 제보자 5명 중 2명이 [개나리]로 발음하고, 3명이 [개 : 나리]라고 발음한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거의[거의]’를 [거이]와 [거 : 이]로, ‘면회(面會)[면 : 회]’를 [면 : 회]와 [면회]로 일정하지 않게 발음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오늘날 서울말에서는 음장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준말이 될 경우에는 다음 (4)와 같이 이른바 ‘보상적 장음화 현상(이병근 : 1978)’이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장음은 다음의 (5)와 같이 제2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기도 한다.

- (4) 끼 + 어 → 끼어, 께 : (igd, ims, ohc)  
 꾸 + 어 → 꾸어, 꺨 : (igd)  
 쑤 + 어 → 쑤어, 쑨 : (ims)  
 부엌 → 벌 : (ohc)
- (5) 무진장[무진 : 장](igd), 가므소름해서[가므소름 : 해서](sjs),  
 까무스름허게[까무스름 : 허게](sjs), 고무뽀드[고무뽀 : 드](ims)  
 새콤허지[새콤허 : 지](sjs)

서울 방언에서는 음성모음화(陰性母音化), 모음조화(母音調和), 단모음화(單母音化), 움라우트(umlaut), ‘이’모음순행동화,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 경구개음화(硬口蓋音化), 연구개음화(軟口蓋音化), 어두경음화(語頭硬音化), 고모음화(高母音化),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음운 축약, 음운 첨가, 음운 탈락, 중화(中和) 현상 등이 실현된다.

서울 방언의 음운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음성모음화 현상이 활발히 실현되는 것이다. 서울 방언에서 음성모음화 현상은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다음의 (6ㄱ)은 음성모음화 현상이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6ㄴ)은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서울 방언에서 음성모음화 현상이 세차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생활 환경이 각박해진 데서 기인한다.

- (6) ㄱ. 굴:목(igd), 둔:<sup>4</sup>(igd), 바루(ims), 아깝다(igd), 빨깁다(ims)  
 ㄴ. 꺾어서(ims), 남었구나(igd), 남어(igd), 대접허구(ims), 많았구(ohc),  
 절또구(cyg), 지끔두(cyg), 청와대꺼지(cyg), 종이루(ohc),반대루(ims),  
 답구서는(sjs), 끝으루(ims), 거기두(ims), 형겁으루(igd)

서울 지역 방언에서는 음성모음화 현상이 강력히 실현되면서 다음 (7)에서 보듯이 모음 조화 현상이 심하게 동요되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 중에서 어떤 이는 모음 조화를 유추하여 ‘타리’를 ‘타라’라고 말하는 이(ohc)도 있다.

- (7) ㄱ. 많어(ohc),잡어(igd), 알어(ohc), 살어라(igd), 살어서(ims), 꺾어서(ims),  
 찻어서(ohc),아퍼서(sjs), 앓아서(ohc), 달리오(sjs), 가라앉어요(cyg)  
 ㄴ. 받았지(igd), 살었는데(cyg), 살었지(ohc, sjs), 앓았지(ims)

서울 방언에는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단모음화 현상이 실현되고 있다. 단모음화 현상은 좀더 쉽게 발음하고 싶은 욕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간이화(簡易化) 현상의 일종이다. 그 보기를 들어 보면 다음의 (8)과 같다.

- (8) 가자(과자, ohc), 강:경(광경, ohc), 거이(거의, sjs), 계실(계실, sjs), 기시쵸(계시쵸, sjs), 기집애(계집애, sjs), 띠어서(띠어서, sjs), 만:하(만화, ohc), 머야(뽕야, sjs), 메느리(며느리, sjs), 메칠(며칠, cyg), 뗏(뗏, ohc/igd), 바껴(바뀌, ohc), 바셔(봐서, sjs, ohc), 받으셨어요(받으셨어요, sj

5) ‘둔:’은 ‘돈’을 뜻함.

s), 뵈:지(뵈지,ohc), 벨(별, ohc), 벨루(별로, igd), 뿌레요(뿌려요, sjs), 생활(생활, ohc), 시원참으니깐(시원참으니깐, sjs), 식:혜(식혜,sjs), 옛날(옛날, ohc), 으복(의복, sjs), 장:하흥년전(장화흥년전, ohc), 주변(주변, ohc), 찰:영해(찰영해, ohc), 청계천(청계천, ohc), 편:지(편지, sjs), 햇빛(햇빛, ims), 히다(희다, ims)

이상의 (8)을 통해 보면 이중모음들은 다음의 (9)와 같이 단모음으로 바뀔 수 있다.

- (9) ㄱ. 여 →어/이/에 [보기]받으셨어요→받으셨어요, 벨→벨, 편지→편지  
 ㄴ. 예 →이/에 [보기]계집애→기집애, 식혜→식혜, 옛날→옛날  
 ㄷ. 와 →아 [보기] 과자 →가자, 만화 →만하, 생활→생활  
 ㄹ. 의 →으/이 [보기] 의복 →으복, 거의→거이

서울 방언에도 다른 지역 방언에서와 같이 움라우트(umlaut) 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선행하는 후설모음 ‘어, 아’ 등이 후행하는 동화주 ‘i’나 ‘y’에 의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의 일종이다. 이것은 명사나 동사의 형태소 경계에서 주로 실현되는데, ‘고갯이, 그갯이’ 등과 같이 대명사에 조사가 결합될 때에도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 방언에 나타나는 움라우트 현상은 경기도 방언과 같이 개재 자음이 [-cor]인 경우 제약을 받는다. 또한 동화주가 ‘ay, uj, wi’의 단모음화나 >에 의한 이차적 ‘i(y)’인 경우에는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다.

- (10) 건데기(ims), 깎뒤키(sjs), 내뻘기다(sjs), 누데기(ohc), 두루매기(sjs), 품팡이(igd), 보재기(sjs), 오이소배기(igd), 지푸래기(ohc), 갈애요(sjs), 구멍이(igd), 대립질(igd), 맥이다(sjs, cyg, igd), 방맹이(igd), 백이다(igd), 뱃기다(ims, sjs), 색히다(ims), 애:끼다(igd, sjs), 영:덩이(igd), 예기구(igd)<sup>5)</sup>, 열립곱(igd), 찌리(ohc)<sup>6)</sup>, 잽히다(sjs), 췌일(im

6) ‘예기구’는 ‘여기고’가 움라우트 현상과 음성모음화 현상으로 바뀐 것임.

7) ‘찌리’는 ‘자리’의 변종임.

s), 증매쟁이(sjs), 찌깨기(igd), 채리다(igd), 챙기름(sjs), 챙양면(sjs), 토백이(sjs, cyg), 핵교(igd,sjs, cyg, ohc)

서울 방언에서도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이’모음순행동화 현상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올라우트와 달리 선행하는 동화주 ‘이’에 후행하는 후설모음 ‘어, 아’ 등이 ‘여, 애’ 등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의 일종이다.

- (11) 비여서(←비어서, igd), 이여서(←이어서, ims), 장남깜이래는(←장남감이래는, ohc), 옥루몽이래는(←옥루몽이라는, sjs), 명이래는(←명이라는, igd)/한:식이탄 (←한 : 식이탄, ims), 아니예요(←아니어요, cyg)

원순모음화 현상이 다른 지역 방언에서와 같이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원순성 자음에 비원순모음인 ‘으’가 통합되면 ‘으’가 원순모음 ‘우’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영목(1992 : 110)에서는 충남 방언에서 어두 원순모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제2 음절 아래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는데, 서울 방언에서는 다음의 (12ㄴ)에서 보듯이 어두에서도 원순모음화가 나타난다.

- (12) ㄱ. 시아분님(sjs), 할아버지(sjs), 아버지(sjs)  
 ㄴ. 뽀:찌(ohc)<sup>7)</sup>, 볼다 (ohc)<sup>8)</sup>, 뽀개다(ohc)<sup>9)</sup>

한편 서울 방언에서는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대체로 원순모음 ‘오’가 비원순모음 ‘어’로 교체되는데, (15ㄱ)과 같이 제1 음절이나 (15ㄴ)과 같이 제2 음절 이하에서도 실현된다.

- (15) ㄱ. 버다(←보다, sjs), 버리(←보리, igd, ohc), 번떠(←본떠, igd), 번정통(←본정통, ohc),  
 ㄴ. 너머(←너무, sjs), 때민(←때문, ohc), 일번(←일본, ohc)

8) ‘뽀지’는 ‘버찌’의 변종임.  
 9) ‘볼다’는 ‘벌다’의 변종임.  
 10) ‘뽀개다’는 ‘빠개다’의 변종임.

서울 방언에서 ‘ㄷ’의 구개음화는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발이[바치]’ 등에서와 같이 활발한데, ‘ㅎ’의 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고 ‘흥내~승내(cyg), 힘~심(ohc), 힘들다~심들다(sjs)’ 등에서처럼 단어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난다<sup>10)</sup>. ‘ㅎ’의 구개음화는 어두 음절에서만 실현된다. 특이한 것은 남부 방언, 충청도 방언, 경기도 방언 등에서 실현되는 ‘ㄱ’이나 ‘ㅋ’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으며<sup>11)</sup>, 본래 구개음이었던 것이 구개음화의 동화주인 ‘i’나 ‘j’ 앞에서 구개음화에 역행하여 변화한 ‘김승(←짐승, ohc)/김생(←짐승, igd)’ 등이 쓰인다는 점이다.

서울 방언에도 연구개음화 현상이 실현된다. 이것은 비연구개음이 연구개음인 ‘ㄱ, ㅋ, ㆁ, ㅇ’ 등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다음의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 비연구개음인 ‘ㄴ, ㄹ’ 등이 후행하는 연구개음 ‘ㄱ’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개음 ‘ㅇ’으로 실현된다.

- (16) 향글날(←한글날, ohc), 그렇 경가(←그런 건가, sjs), 챙기름(←참기름, sjs), 향 가지(←한 가지, sjs), 황경도/황경두(←함경도, igd), 병개탄(←번개탄, ims)

다른 지역 방언에서처럼 서울 방언에서도 어두경음화(語頭硬音化) 현상이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이것도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강하게 발음하여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정도로 서울의 생활 환경이 각박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17) 까루(←가루, ohc), 깔구리패(←갈고리패, ohc), 꼬추가루(←고추가루, cy

11) 김영황(1978 : 420)에서는 龍飛御天歌 제19장에 쓰인 “센 할미를”에 쓰인 ‘센’은 ‘헨’이 구개음화한 것이라 하여 ‘ㅎ’의 구개음화는 ‘ㄷ, ㅌ’의 구개음화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2) 김영황(1978 : 419-420)에서는 訓蒙字會에 쓰인 ‘깃’과 ‘치’를 들어 ‘ㄱ’의 구개음화가 ‘ㄷ, ㅌ’의 구개음화보다 먼저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기문(2001 : 208)에서는 처음인 ‘ㅈ, ㅊ’이 ‘i, y’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를 이기문(2001 : 208)에서는 18세기로 간주하고 있다.

g), 끼치다(그치다, igd), 끼치장(←고추장, cyg), 똥:그랏다(←동그랏다, ohc)/똥그랏다(←동그랏다, ims), 뚜들기다(←두들기다, igd), 빠닥(바닥, igd), 빠짝(←바짝, sjs), 싸람(←사람, cyg, ohc, sjs, igd, ims), 쌍늬(←상늬, ohc), 찰리서(←잘라서, ohc)/찰라(←잘라, igd, ims), 짱안(←장안, ohc), 쯤:끼땅다(igd)/쯤:그땅다(ims)/쯤그땅다(ohc, ims)/쯤끼땅다(←조그땅다, sjs), 쯤끔(←조금, sjs, ohc, ims)/쯤끔(igd, ims), 쯤(←죤, sjs, ohc), 쯤각(←조각, ohc)

서울 방언에서는 ‘에→이’, ‘어→이’, ‘어→으’, ‘오→우’ 등과 같이 저모음이 고모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이른바 고모음화(高母音化) 현상이 활발히 실현된다. ‘어→으’가 ‘어→이’보다 더욱 생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간이화 욕구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18) 그릉지(←그렁지, ohc), 주루(←주료, ohc), 시:구(←세고, ohc), 늣구(←녕고, ohc), 요릉계(←요렁계, ohc), 그른(그런, ohc, ims), 일굽(←일곱, igd, sjs), 올러오셔스(올라오셨어, sjs), 지:사(←祭祀, sjs), 버리고(←버리거, ohc), 즈(←저, cyg), 으루(←으료, igd, ims), 을마(←얼마, igd), 나오드니(←나오더니, igd), 보구(←보고, cyg), 스구(←서고, ims), 시굴(←시골, ims), 외삼춘(←외삼촌, ims), 미:구(←메고, ims), 마구자(←마고자, ims)

서울 방언에서 전설모음화 현상이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될 적에 한한다.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경우에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19) ㄱ. 씨러지다(←쓰러지다, ohc), 씨다(←쓰다, sjs), 질기다(←즐기다, ohc), 말썸(←말씀, sjs), 부시러지다(←부스러지다, igd), 부시다(←부수다, igd)  
 ㄴ. 앉았이니까(←앉았으니까), 사셨이면(←사셨으면), 했이니까(←했으니까), 탔이니까(←탔으니까), 다녔이니까(←다녔으니까)<sup>12)</sup>

---

13) 이와 같이 발음하는 이는 국립국어연구원(1997)의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에 수록되어 있는 A 그룹 제보자들 중 bgm이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20ㄱ)과 같이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20ㄴ)과 같이 [ㄴ]으로 발음한다. 또한 용언의 어간말 자음이 [-sonorant]인 경우에는 경기도 방언과 같이 (20ㄷ)처럼 어간과 어미 사이에 ‘으’가 삽입된다.

- (20) ㄱ. 육이오[웅니오](sjs), 훌이불[흔니불](igd, ims)  
 ㄴ. 베갯잇[베갸넌](igd, ims)  
 ㄷ. 뷁으쥌(sjs)/뷔으느지(igd), 뽕으는(sjs), 곁으냐(igd, ims)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것에 의도형 연결어미가 결합되면 어간 말음에 ‘ㄹ’ 음이 첨가된다.

- (21) 갈라구(ohc)/갈려구(igd), 가리칠려니까는(sjs), 쓸려구(sjs), 탈려며는(cyg)

제보자들 중에는 (22ㄱ)과 같이 어두음 ‘ㄹ’을 그대로 발음하거나, 절음법칙에 따라 발음하지 않고 (22ㄴ)처럼 받침을 연음하는 이가 있다.

- (22) ㄱ. 량식(sjs), 령감님(igd)  
 ㄴ. 멧있다[머시따](sjs), 맛있는[마신는](igd)

(22ㄱ)과 같이 두음 법칙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어두음 ‘ㄹ’을 발음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섭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서울 방언의 특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sup>13)</sup>

서울 방언에서도 다른 지역 방언에서처럼 어말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실현

14) 제보자 igd는 ‘령감님’과 ‘영감님’을 혼용하는데, ‘령감님’은 한 번 사용하고, 두 번은 ‘영감님’을 사용하였다.

된다. C<sub>1</sub> C<sub>2</sub> 의 자음군 가운데 [+cor] 자음이 탈락한다. ‘샜→삭, 닭→닥’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은, 으로’ 등이 나 지정사 ‘이다’가 연결될 때 재구조화하지 않고 그대로 연음이 된다.

- (23) ㄱ. 밝다[박따](cyg, ohc), 밝지[박찌](igd, ims)  
 ㄴ. 샜이[사기](ims), 닭이[다기](ohc), 닭을[다글](ohc), 닭이지[다기지]  
 (ims), 까닭으로[까다그로](ohc)

체언 말음 ‘ㄷ, ㄱ, ㅌ, ㅍ’ 등의 마찰음화와 무기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cor, +asp] 자질을 지닌 체언 말음 ‘ㄷ, ㅌ’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 되면 이것들은 다음의 (24ㄱ)과 같이 [ㅅ]으로 발음된다.<sup>14)</sup> 그런데 체언 말음이 [-cor, +asp]인 ‘ㄱ, ㅍ’인 경우에는 다음의 (24ㄴ)과 같이 이것들이 무기음 [ㄱ], [ㅍ]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 (24) ㄱ. 꽃→꼬시, 꼬술, 꼬세  
 숯→수시, 수술, 수세  
 팔→파시, 파술, 파세  
 ㄴ. 부엌→부어기, 부어글, 부어계  
 숲→수비, 수블, 수베  
 헝겂→헝거비, 헝거블, 헝거베, 헝거브루

표준어에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기르다, 누르다, 다르다, 마르다, 모르다, 바르다, 부르다, 이르다, 흐르다’ 등은 서울 방언에서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서울 방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sup>15)</sup>

15) ‘숯’의 고어는 ‘숯기’이고, ‘팔’의 고어는 ‘פות기’이다. ‘숯’은 지역에 따라 ‘술, 솟, ‘수경’ 등으로 분화되고, ‘팔’은 지역에 따라 ‘팔, 팻, 풀’ 등으로 분화된 것이다.

炭은 솟기라<月釋, 23 : 92>

פות글 누라니 시버<救方下 21>

16) 황대화(2001 : 29~35)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ㄹ’ 덧나기현상이라 하여 일종의 음운 첨가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 (25) ㄱ. 길르구, 길르지, 길른, 길를, 길러  
 ㄴ. 달르구, 달르지, 달른, 달를, 달러  
 ㄷ. 물르구, 물르지, 물른, 물를, 물러  
 ㄹ. 불르구, 불르지, 불른, 불를, 불러  
 ㅁ. 흘르구, 흘르지, 흘른, 흘를, 흘러

이른바 ‘ㅁ’ 불규칙용언인 ‘가렵다, 괴롭다, 무섭다, 더럽다, 어렵다’ 등은 ‘가려와서, 괴로와서, 무서와서, 더러와서, 어려와서’ 등과 같이 활용을 한다. 그런데 5명의 체보자 중 1명(igd)은 ‘가깝다, 반깝다’ 등을 ‘가까워서, 반가워서’ 등과 같이 활용을 한다.

## 2.2 문법

서울 방언의 조사(助詞)에는 다양한 변종이 존재한다. 주격 조사로는 ‘이, 가, 이가, 에가’ 등이 존재한다. 주격 조사 ‘이’는 폐음절 아래에서 실현되고, 주격 조사 ‘가’는 개음절 아래에서 쓰인다. 주격 조사 ‘이가’와 ‘에가’는 폐음절이나 개음절 아래에서 쓰이는데, ‘에가’는 선행하는 체언이 [+처소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실현된다.

- (26) ㄱ.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구 공원을 맨들어 냈어(igd).  
 ㄴ. 내가<sup>16)</sup> 양복 일을 배운 게...(cyg).  
 ㄷ. 전차가 다녔었구(ims).  
 ㄹ. 이 정:씨 맥에가 원 후히세요(sjs).

목적격 조사로는 ‘르, 를, 을/얼/일’ 등이 존재한다. 목적격 조사 ‘르, 를’은 개음절 아래에서 실현되고, ‘을/얼/일’ 등은 폐음절 아래에서 실현된다.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다른 성분이 없으면 목적격 조사는 다음의 (27ㄱ), (27ㄴ) 등과 같이 대체로 생략된다.

17) ‘내가’는 ‘나+이가’로 분석된다.

- (27) ㄱ. **젊은** 사람이라 또 **이결** 타 왔겠지(ims).  
 ㄴ. 청와대를 **그결** 보구서(cyg)  
 ㄷ. 공원을 맨들어 **났어**(igd).  
 ㄹ. 저녁**덜얼** 먹어요(sjs).  
 ㄹ. **학식일 배** : 서(sjs)  
 ㅂ. **저고리** 짓는 거, **치마** 짓는 거(igd).  
 ㅅ. 여름에 **냉면** 먹어야 시원하구(ays).

관형격 조사로는 ‘의, 에, 으, 이’ 등이 존재한다. 관형격 조사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방언에 관형격 조사의 변종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서울 토박이들이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8) ㄱ. 양력은 일본 **사람의** 일이라구 그러구(ims).  
 ㄴ. **고모님에** 아들(igd)  
 ㄷ. 우리 **아버지에** 사 : 춘 형님(ims)  
 ㄹ. **즈이** 집사람이 그랬어요(cyg).  
 ㄹ. **남으** 집까지 다 어뜨게 해서 아는 거 …(sjs).

부사격 조사로는 ‘에/이/, 에다가/이다가, 에서/이서, (으)루/(으)루다가/르루다, 한테/헌테, 하구/허고/허구, (으)루서, 보덤/보더/보단/보담/버덤/부다, 곁이/모냥, 구’ 등이 존재한다. 다음 예문 (29ㄱ)~(29ㄷ)에 쓰인 ‘에, 이, 에다, 이다’ 등은 ‘선행어가 사람이나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부사격 조사 ‘이’는 ‘에’가 고모음화에 의하여 그 끝이 바뀐 것이고, ‘이다’는 ‘에다’의 변종이다. 부사격 조사 ‘에다’는 ‘에다가’의 준말이고, ‘이다’는 ‘이다가’의 준말이다. ‘에/이’는 (29ㄷ)에서 보듯이 ‘어떤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29) ㄱ. 시골에 가 본 일이 없어(igd).  
 ㄴ. 집이 많이 눌러 갔지(ohc).  
 ㄷ. 집이다 죄다 뒷방에다<sup>17)</sup> 감춰 놓구 우리 아이 없 : 다 그래(igd).  
 ㄹ. 일이 아주 풀어서 썩어 빠렸어(igd).

다음의 예문 (30ㄱ)의 ‘에서는’은 부사격 조사 ‘에서’에 특수 조사 ‘는’이 결합된 것이다. (30ㄴ)의 ‘이서’는 ‘에서’의 변종이다. ‘에서/이서’는 ‘선행어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곳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런데 ‘에서/이서’는 (30ㄷ), (30ㄹ) 등과 같이 주격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에서/이서’의 선행어는 어떤 단체의 의미를 내포한다.

- (30) ㄱ. 그때는 이 도시에서는 거이 신식들 했지(ims).  
 ㄴ. 공장이서 맨드는 가게가 있었구(ohc).  
 ㄷ. 그 풍선이 공중에서 하늘루 다 각각 날라 달아나(igd).  
 ㄹ. 조선일보사에서 백여서(igd)  
 ㅁ. 일이 많아서 내보내질 않아. 시집이서(igd).

다음 예문 (31)에 쓰인 ‘(으)루, (으)루다(가), ㄹ루다’ 등<sup>18)</sup>은 ‘(으)로써’의 변종이다. 이것들은 ‘선행어가 어떤 것을 만드는 재료나 수단임’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이다.<sup>19)</sup> 이것들의 선행어는 [-유정성], [+처소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 다음의 예문(32ㄱ)에 쓰인 ‘으루’는 ‘(으)로’의 변종이다. 이것은 ‘선행어가 어떤 방향이나 지향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것의 선행어는 [-유정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 예문 (32ㄴ)에 쓰인 ‘(으)루’는 ‘(으)로서’의 변종이다.

18) ‘에다’는 ‘에다가’의 준말이다. 이것은 ‘행위 대상의 도달점임’을 나타내거나,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어떤 것에 다른 것이 첨가됨’을 뜻하기도 한다.

[예문] 깍두기<sup>에다</sup>가 배허구 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놓구(sjs)

19) ‘(으)루, (으)루다(가), ㄹ루다’ 등에 쓰인 ‘루’는 ‘로’가 음성모음화에 의하여 바뀐 것이다.  
 20) (30ㄱ) (30ㄹ)에 쓰인 ‘(으)루, 루다(가), ㄹ루다’ 등은 ‘선행어가 어떤 것을 만드는 재료임’을 뜻하는데, (30ㄷ)에 쓰인 ‘(으)루’는 ‘선행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임’을 뜻한다.

이것은 ‘선행어가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것의 선행어는 [+유정성]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

- (31) ㄱ. 형겹으루 댕길 맨들어서(igd)  
 ㄴ. 톨란으루 해 놓구(ims)  
 ㄷ. 철사루다 이렇게 병아리 길르는 것같이 그런 걸 맨들어서(igd).  
 ㄹ. 양회루다가 이렇게 뻗들겹이 둥그런 걸 맨들어서(igd)  
 ㅁ. 저겹루다 현 거(sjs)  
 ㅂ. 전화루 또 물어보더니(igd)
- (32) ㄱ. 사직동에서 영천으루 올라가는 터널을 맨들었지 않아요(igd)?  
 ㄴ. 우리 조부가 이 구한국 시대에 저 강화 판관으루 황주 목사루 수원유수루 그렇게 댕기셔 가지구(sjs)

다음의 예문 (33ㄱ)에 쓰인 부사격 조사 ‘께’는 ‘에게’의 높임말이고, 예문 (33ㄴ) ~ (33ㄹ)에 쓰인 ‘한테’와 예문 (33ㅁ), (33ㅂ) 등에 쓰인 ‘헌테’는 ‘에게’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헌테’는 ‘한테’가 음성모음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종이다.

- (33) ㄱ.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구(igd)  
 ㄴ. 일본놈한테 붙들려 가느니(igd)  
 ㄷ. 으 : 른한테 들었는데(ohc)  
 ㄹ. 내가 톨란 사러 가는데, 장사한테 이견 어떻게 꿏어먹는 거내(cyg).  
 ㅁ. 얘:들헌테는 정월이 좋쥬(cyg).  
 ㅂ. 누가 누구라구 녀헌테 말하기 어려와(sjs).

다음의 예문 (34)에 쓰인 조사 ‘하구/허구’는 ‘하고’의 변종이다. 예문 (34ㄱ) ~ (34ㄴ)에 쓰인 ‘하구/허구’는 ‘과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예문 (34ㅁ)과 (34ㅂ)에 쓰인 ‘허구’는 ‘그리고’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이다. (34ㅄ)에서 보듯이 ‘하구’가 ‘직접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 (34) ㄱ. (우리) 애들이 작은집 애들허구 같이 있었을 때니까(ims)  
 ㄴ. 정씨허구 내허구 갔지(cyg).  
 ㄷ. 여자덜허구두 놀긴 놀았지(ohc).  
 ㄹ. 구멍이 좁 파 달라는 걸 안 파 주구 갈 수 있느냐고 내 영감님허구나  
 허구 아이들허구 그 구멍이를 인제 같이 또 피란 간 사람두 남자가  
 더 있어(igd)  
 ㅁ. 오남매에서 우리 오라버니허구 내 동생들은 다 일찍 아주 조사(早死)  
 했어요(sjs).  
 ㅂ. 종이허구 연필을 구경두 못 해(igd).  
 ㅅ.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서 세수허구 머리 빗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안  
 녕히 주무셨습니까허구 문안 인사 드리러 가야지(igd).

서울 방언에서는 차등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인 ‘보다’의 변종으로는 ‘보더/부다, 버덤/보덤/부덤/보담’ 등이 존재한다. 다음의 예문 (35ㄱ)에 쓰인 ‘보단’은 ‘보다는’의 준말이다.

- (35) ㄱ. 그러니까는 한데 이렇게 한 성중 안에 사는 것보다 참 만나는 것보  
 더 어렵죠(sjs).  
 ㄴ. 서울에 살 길 우리 할아버지 찍버텀 산 게 삼십이 대를 사는데 서울  
 육백 년버덤 더 먼점 ...칠백년이나 되는 세월을 살어서 내가 뽀힌 거  
 라구(igd).  
 ㄷ. 그래도 나부다 좀 낮게 어디 여행을 땡겨오고 그러믄 그렇게 마음에  
 대견허대요(sjs).  
 ㄹ. 킴킴허지 조끔 한옥집보덤(ohc).  
 ㅁ. 황경도 싸람들은 다른 도 싸람들보덤 이 자식 가리키는 게 참 지독해  
 (igd).  
 ㅂ. 이거보담 더 진헌 거 있잖아(ims).  
 ㅅ. 들레가 이보담 더 큰 하연 풍선(igd).  
 ㅇ. 이거부덤 뭐 더 이 정도는 깊었지(cyg).  
 ㅈ. 좀 판 사람보담 잘 했다구 상두 받았지(igd).

조사 ‘보다’의 변종이 다양하고, 이상의 예문 (35ㄱ), (35ㄷ) 등과 (35ㅁ), (35

스), (35ㅈ) 등에서 보듯이 동일한 제보자가 일정한 변종을 사용하지 않고 상이한 변종을 사용하는 것은 조사 ‘보다’의 형태가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을 받아서 중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 방언에서는 ‘동등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는 ‘겘이, 모냥’ 등이 존재한다. ‘모냥’은 명사 ‘모양(模樣)’이 조사로 전성된 것이다.

- (36) ㄱ. 구름겘이 날라가 버렸다구 그랬지(igd).  
 ㄴ. 지끔겘이 비싸진 않았지(ims).  
 ㄷ. 그 전은 시골모냥 왔다갔다 거 대문두 열어놓구 댕기구 그랬어(ohc).

서울 방언에는 조사 ‘고’의 변종으로 ‘구’가 존재한다. 이것은 ‘간접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후행하는 서술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다음의 예문 (37ㄱ)에 쓰인 ‘구’는 전자의 보기에 해당하고, 예문 (37ㄴ)에 쓰인 ‘구’는 후자의 보기에 속한다.

- (37) ㄱ. 그런 것이 있으믄 그런 거를 이런 상에 그것두 자기 식성 따라 먹으  
 라구 한 가지씩은 봐요(sjs).  
 ㄴ. 좀 판 사람보단 잘 했다구 상두 받았지(igd).

특수 조사로는 ‘은/언/는/넌, 두, 까지/꺼지/꺼정, 부터/버터/버텀/부텀, 만치, 밖에/백에, 요’ 등이 존재한다.

특수 조사 ‘은/는’의 변종으로 ‘언/넌’을 사용하는 이는 제보자 5명 중 1명(ohc)이다. 그 제보자는 ‘은/는’도 혼용하고 있다. 이것은 ‘언/넌’이 그 제보자의 개인어를 반영하는 것이고, 서울 방언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8) ㄱ. 나는 청춘을 집 속에서 늙어버렸어(igd).  
 ㄴ. 찌그래기넌 나만 입었다 하믄 왜 옷이 찢어지냐 그 딸이지(ohc).  
 ㄷ. 엔날에는 돈 많은 사람언 에 일런치 한꺼번에 사서(ohc)

- ㄹ. 국은 국물이 좀 많지(ims).
- ㅁ. 서울 토백이는 향뽕을 …(cyg).

서울 방언에서는 특수 조사 ‘도’가 음성모음화에 의해 ‘두’로 실현된다. 또한 ‘까지’의 변종으로 ‘꺼지’와 ‘꺼정’이 존재한다. ‘꺼정’은 중세국어 ‘ᄃ장>시장’이 변하여 형성된 것이고, ‘꺼지’는 ‘까지’가 음성모음화로 그 끝이 바뀐 것이다. ‘까지’는 중세국어 ‘ᄃ지’가 변하여 형성된 것이다. 원래 ‘ᄃ장’과 ‘ᄃ지’는 ‘極’을 뜻하는 명사이던 것이 특수조사로 전성된 것이다.

- (39) ㄱ. 수원**꺼정** 간다구 갔는데(igd).  
 ㄴ. 을지로 입구**꺼정** 가는데(ohc)  
 ㄷ. 그거를 다 나올 때**꺼정** 해 해주구(ims)  
 ㄹ. 여기서 걸어서 거기**꺼지** 갔어요(cyg).  
 ㅁ. 이 문 밖에서 세순물**꺼지** 떠다주는 걸루다 했지(sjs).

서울 방언에는 특수 조사 ‘부터<sup>20)</sup>’의 변종인 ‘버터’, ‘버텀’, ‘부텀’ 등이 존재한다. ‘버터’는 ‘부터’가 비원순모음화에 의해 바뀐 것이다. ‘버텀’은 ‘버터’에, ‘부텀’은 ‘부터’에 ‘ㅁ’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이다.

- (40) ㄱ. 시집을 때**버터** 일쩡 시덴데 …(sjs)  
 ㄴ. 서울에 살 길 우리 할아버지 **쩍버텀** 산 계 삼십이 대를 사는데(igd)  
 ㄷ. 난 어렸을 때**부텀** 전:기 있었지(ohc).  
 ㄹ. 피란을 육이오 때 가든 그런 **거부텀** 챙개 가지고 가야 하는데(igd)  
 ㅁ. 우리 할머니 **쩍부텀** 쓰시던 거니까(ims)

서울 방언에는 화자가 청자를 친근하게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특수 조사 ‘요’와 이것의 변종인 ‘여’가 공존한다. 조사 ‘여’를 사용하는 제보자는 5명 중 2명(sjs, ohc)이다. 이 제보자들은 다음의 예문 (41ㄱ)과 (41ㄴ), (41ㄷ)과 (41ㅁ)

21) ‘부터’는 중세국어 ‘브터’가 원순모음화에 의해 변한 것이다. ‘부텀’은 근대국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들은 ‘브터>부터>부텀’ 등의 변천 과정을 거친 것이다.

등과 같이 ‘요’와 ‘여’를 혼용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서울 방언에서는 조사 ‘요’가 동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41) ㄱ. 참 그때에 사람은 우리 곁은 사람 많이 고생했어여(sjs).  
 ㄴ. 그때는 우리네 집 가정에서 열레 살 열세 살이믄 다 혼인했에요(sjs).  
 ㄷ. 일가구 뭐구 나만 이렇게 혼자 오래 살지 다 죽구 없어요(igd).  
 ㄹ. 다시 복원을 해 냈으믄 좋겠어요(cyg).  
 ㅁ. 잘못 허문 밥이 타요(ims).  
 ㅂ. 그래 가주구 그때 전차 타기가 또 심 들었어요(ohc).  
 ㅅ. 그때두 교통은 좋지 않았어여(ohc).

특수 조사 ‘밖에’의 변종으로 ‘백에’가 존재하고, ‘대로’가 음성모음화에 의하여 ‘대루’로 바뀌어 실현된다.

- (42) ㄱ. 서울 짜람은 한 너덧**밖에** 안 돼(igd).  
 ㄴ. 당신 혈육이라곤 그 외손자 하나**백에** 없어요(sjs).  
 ㄷ. 그 총알 꺾데기를 다 식구**대루** 어른, 아이가 그걸 **대루**<sup>21)</sup> 하나씩 퍼서(igd)

서울 방언에 쓰이는 연결 어미들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는 ‘-(으)면/믄/므는, -(으)면섬/면선/믄선, -(으)니까드루, -어이, -(으)리라면/리라믄/리라믄, -(으)라, -(으)리려구/리라구/리라구, -구, -구서, -드키/-뜨키’ 등을 들 수 있다.

연결 어미 ‘-(으)면/믄/므는/며는’ 등은 표준어 ‘-(으)면’과 대응하는 것이다.

- (43) ㄱ. 일요일이면 꼭 와서 저녁덜얼 떡어요(sjs).  
 ㄴ. 그때 그건 너머 지끔 생각허믄 원시적인 거 곁으죵(sjs).  
 ㄷ. 갈 쟈 끝구 가구 인제 학생들이 파허믄 사무실에 앉혔다가 올 때 또 데리구 오구(igd).  
 ㄹ. 저 중앙우체국에서 가믄 …(ims).

22) ‘대루’는 ‘되로’를 뜻한다.

- ㄱ. 그릉지 았으믄 머 기피, 기피라구 알아(ohc)?
- ㄴ. 잘 나므는 네 쪽 나죠클(sjs).
- ㄷ. 비가 안 오구 가무믄는 비 줌 오시라구 제사 지내라 들어가는 제관만 들어가구(igd)
- ㄹ. 우리는 식혜를 저거허믄는 하얀 게 …(cyg).
- ㅁ. 아프믄 그냥 투약을 허구(cyg).
- ㅂ. 잘못 허문 밥이 타요(ims).
- ㅅ. 그거 피면 하루 쫓일 가(ims).

이상의 예문 (43)를 통해 볼 때 연결 어미 ‘-(으)면’의 변종들 가운데 제보자 5명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으)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면’이 단모음화와 고모음화에 의하여 끝이 바뀐 것이다. 제보자 sjs는 ‘-(으)면/믄/므는’ 등의 여러 변종을 사용하고, 제보자 ims는 ‘-(으)면/믄/문’ 등의 다양한 변종을 사용한다. 이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구사하는 방언의 영향을 받아 서울 방언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예이다. ‘-(으)믄는’는 고형 ‘-(으)며논’<sup>22)</sup>의 변형이다.

연결 어미 ‘-(으)면섬/면선/믄선’ 등은 표준어 ‘-(으)면서는’<sup>23)</sup>과 대응하는 것이다.

- (44) ㄱ. 어머니가 바느질을 허시면섬 날 옆에다 았허놓구 …(igd).  
 ㄴ. 투표날인데 그때는 공일허면선 …(ohc)  
 ㄷ. 각 동마다 댕기믄선 어느 핵교 …(ohc)

서울 방언에는 ‘마땅히 그래야 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어야’와 ‘-어이’가 공존한다.

- (45) ㄱ. 그거 주사 맞으믄 하루는 았어이 대(ohc).

23) ‘-며논’이 쓰인 보기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서 놀애를 드러 두세 번만 부츠며논<청구영언>

24) ‘-(으)면서는’는 ‘-(으)면셔’가 변하여 형성된 것이다.

- ㄴ. 그걸 달쌍을 해야 돼요(cyg).
- ㄷ. 집에서 으른 계시면 맨들어야 하니까(sjs).
- ㄹ. 인사를 해야 좋지(igd)

어떤 동작을 하려는 주체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라’가 존재하고, 주체의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르라구/르랴구/르려구’가 존재한다.

- (46) ㄱ. 옷을 갖다 주러 내가 한번 청와대를 들어가 봤었어요(cyg).
- ㄴ. 비가 안 오구 가무며는 비 좀 오시라구 제사 지내라 들어가는 제관만 들어가기(igd)
  - ㄷ. 국지루 떠날라구 인제는 그때는(ims)
  - ㄹ. 나갈라구 그런 차에 그렇게 댘어(ims).
  - ㅁ. 가난해서 시집 안 갈려구 그러까 봐서(igd)

서울 방언에는 ‘-려고 하면’의 준말로 ‘-르라면/르러믄/르려믄/르래면/르래믄’ 등이 존재한다.

- (47) ㄱ. 이거를 다 이렇게 헐라면...(sjs)
- ㄴ. 그런 걸 헐러믄...(sjs)
  - ㄷ. 신촌 가서 내려서 거꺼정 또 걸어가야 된다구, 부대까지 갈래면 그렇게 해서 면회 가구 그랬어.(ims)
  - ㄹ. 공무원 생활 헐래믄 비싼 옷 사 입힐 수 있나(ims)
  - ㅁ. 전차 탈려면 머리 싸매구 창문 넘어서 타구 그랬어(ohc)
  - ㅂ. 조금 밝게 헐래믄 간드레라구 간드레 카바이토 깡통으로 맨든 거(oh c)

연결 어미 ‘-고’나 ‘-고서’와 대응하는 ‘-구’나 ‘-구서’가 존재하고, ‘-듯이’와 대응하는 ‘-드키/-뜨키’가 존재하며, ‘-더라도’와 대응하는 ‘-드래두’가 존재한다.

- (48) ㄱ. 밤에 잠을 덜 자구래두 글을 배구 쓰구 싫어두(igd)
- ㄴ. 남편은 칠십 살이구 나는 육십구세구(igd)
  - ㄷ. 이른 데다 해 가지구선 집안에서 인제 생신을 지내든지 허믄(sjs)

- 르. 돈 반구 물 파는 거예요(cyg)  
 모. 여름엔 너무 더웁구, 겨울엔 너무 춥잖아(ims)  
 바. 같은 청년단끼리두 먹살 지구 싸오구 그때 행사가 많았어요(ohc).  
 (49) 가. 그걸 아주 그냥 우리네 갈비탕 먹드키 먹어요(igd).  
       나. 지끔두 그러뜨키 이제 나간다구(ims)  
       다. 왜모자 쓰드키(ims)  
 (50) 나편을 사다 먹드래두 왜 굶어(igd)?

서울 방언에는 선어말어미 ‘-더-’와 대응하는 ‘-드-’가 존재하고, ‘-겠-’과 대응하는 ‘-껏-’이 존재한다.

- (51) 가. 지금은 뚝섬에 가 있드니 또 어드루 갔는지 몰라(igd).  
       나. 그래두 가깝더라구(ims).  
       다. 박수 치구 그러드라구(ohc)  
 (52) 가. 어, 어, 나는 모르겠다(sjs).  
       나. 그래도 밤에 가는 게 편하겠다 그러구(igd)  
       다. 가리쳐 줬으믄 좋겠는데(sjs)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과 대응하는 ‘-든-’이 존재한다. ‘-든-’은 ‘-던-’이 고모음 화에 의하여 그 끝이 바뀐 것이다.

- (53) 가. 여기 있든 애들이지(ohc, ims).  
       나. 미군 한 사람이 자기네가 화톳하면서 먹든 껌이야(igd).  
       다. 우리 할아버지가 부리시든 인제 참 옛날엔 종이라구 그럴까여(sjs).

보조 용언 ‘버리다’의 변종인 ‘빠리다’가 존재하고, 보조 용언 ‘가지고’의 변종인 ‘가지구’나 ‘가주구’가 공존하며, ‘싫어서’의 변종 ‘십어서’가 존재하며, ‘보다’의 변종인 ‘부다’가 존재한다.

- (54) 가. 조선말 가리키는 선생 다 잡아다 치어 빠렸어(igd).  
       나. 종이루 모자를 맨들어 가지구(ims, ohc)

- ㄷ. 때려부쉬 **가주구** 그렇게 해 는 거예요(igd)
- ㄹ. 옛날엔 이롭게 했다 허구 **십어서** 이걸 적어서 딸을 찾어요(sjs).
- ㅁ. 아침에 그런가 **부다** 하구서(ohc)

서울 방언에서는 표준어 ‘그러니까’와 대응하는 접속사로 ‘그르니까/그르까/그이까/그까/공까’ 등이 쓰이고, ‘그리고’와 대응하는 것으로 ‘그르구’가 존재하며, ‘그러면’과 대응하는 ‘그러믄/그러문’이 존재하고, ‘그런데’와 대응하는 ‘그르데’가 공존한다.

- (55) ㄱ. **그르까** 그 그냥 그땐 사탕 하나만 먹으면 그땐 단 거 못 먹어서 그냥 벨 모양이 다 있드라구(ohc)
- ㄴ. **그이까** 부모네들이 그건 잔뜩 사 놓구 감쳐 놓구 주지(ohc)
  - ㄷ. 이거는 더 오래 된 거야. **그까** 우리 시어머님 친정어머니가 쓰던거(ims).
  - ㄹ. 피 흘리구는 건 **공까** 겁이 나 가지구(ohc)
  - ㅁ. 가정이 조끔 부유허진 못허고 **그르니깐** 고생이 많았어요(sjs).
  - ㅂ. 요기두 내자동 **그르구** 요기서는 체부동이 있구(ims)
  - ㅅ. 노인들이 모이시면 아무개 집 딸이 있구 아무개 집 아들이 있는데 결혼할래나... **그러믄** 그 얘기가 거짓말을 꾸며대두 그건 정말루 알고 그대루 혼인허는 거야(igd).
  - ㅇ. **그러문** 또 잘못 허문 밥이 타요(ims).
  - ㅈ. 열레살에 해 **가주구**서는 어유 너머 일르쵸. **그르데** 그때는 우리네 집 가정에서 열레살 열레살이든 다 혼인했어요(sjs).

재귀대명사 ‘자기’와 대응하는 ‘지’가 존재한다. 이것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면 ‘제:, 즈이’ 등으로 실현된다. 표준어 일인칭대명사 ‘저’와 대응하는 것은 ‘즈’이고, ‘저희’와 대응하는 것은 ‘즈히’이고, ‘너’와 대응하는 것은 ‘느’이며, ‘너희’와 대응하는 것은 ‘느:들’이다. 이외에 지시대명사 ‘어드, 머/모/무’ 등이 쓰인다. ‘어드’는 ‘어디’의 고행이며<sup>24)</sup>, ‘머’는 ‘무엇’의 준말이고, ‘모/무’는

25) 내 어드로 가 도라오리오<십구사략, 1 : 19>

‘머’의 변종이다. ‘머/모/무’는 보상적 장음화 현상에 따라 장음으로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부사 ‘제일’의 변종으로 ‘지:일’이, ‘실컷’의 변종으로 ‘실컸’이, ‘또’의 변종으로 ‘떠’가, ‘같이’의 변종으로 ‘겘이’가 공존한다.

오늘날 청자대우법의 화계가 이른바 ‘해요체’와 ‘해체’로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 청자를 존대할 경우에는 ‘해요체’를 쓰고, 평대하거나 하대할 경우에는 ‘해체’를 사용한다. 명령법에서 청자를 극존대할 경우에는 ‘하십시오체’와 ‘하세요체’가 공존하는데 ‘하세요체’가 더 많이 실현된다. 청유법에서 청자를 극존대할 경우에는 ‘합시다체’, ‘하세요체’, ‘하시지요체’ 등 세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시지요체’가 가장 많이 쓰인다. ‘해요’의 변종으로 ‘해여’가 쓰이며, ‘하오체’와 대응하는 ‘하우체’가 평서법의문법명령법 등에서 예사높임이나 평대로 실현된다.

제보자 중에는 명령법에서 ‘하소체’와 ‘하우체’의 화계를 달리 보는 이가 있다. ‘하소체’는 청자를 약간 높여 대우할 적에 사용하고, ‘하우체’는 평대할 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 (56) ㄱ. 지금은 신랑을 끌구 겘이 땡기면 데이트두 해 보구 서로 대화두 허구  
친절허게 지내다 결혼허지 **않우(igd)**?  
ㄴ. 밤낮 집 속에서 일반 허구 나갈 새가 **있수(igd)**?

이상의 예문 (56ㄱ)은 화자가 청자를 평대한 것인데, 예문 (56ㄴ)은 화자가 청자를 약간 높여 대우한 것이다. 명령법에서 ‘하소체’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실현에 제약을 덜 받는데,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제약을 많이 받아 주로 장형 부정문이 실현된다.

- (57) ㄱ. 그건 못 **먹어 봤지(ohc)**.

- ㄴ. 이 동네 사람은 여기다가 **안 죽어요**(cyg).
- ㄷ. 시집 간 사람은 **안 잡어 가구**(igd).
- ㄹ. 그걸 많이 받아왔는데 **팔리질 않아서** 인제 곰팡이가 **나지 않아요**(igd)
- ㅁ. 이렇게 **요란스럽지 않았어**(ims).
- ㅂ. 지끔곶이 **비싸진 않았지**(ims).

이상의 예문 (57ㄱ), (57ㄴ), (57ㄷ), (57ㄹ) 등의 서술어 ‘먹어 봤지, 죽여, 팔리지, 나지’ 등은 동사이고, (57ㅁ)과 (57ㅂ)의 ‘요란스럽지, 비싸지’ 등은 형용사이다. 동사가 서술어인 (57ㄱ)~(57ㄷ)은 단형 부정문이고, (57ㄹ)은 장형 부정문이다. 그런데 서술어가 형용사인 (57ㅁ)과 (57ㅂ)은 장형 부정문이다. 이렇듯 서술어가 동사일 적에는 단형 부정문이나 장형 부정문으로 실현되는 데 제약을 덜 받는데,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제약을 받아서 주로 장형 부정문으로 실현된다.

부사가 다음의 예문 (58ㄱ)과 같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놓이는 경우가 있고, 예문 (58ㄴ)과 같이 시상소 ‘-었-’이 본용언에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 (58) ㄱ. **들리질 잘 없으니까** 무슨 소린지를...(igd).
- ㄴ. **터널을 맨들었지 않아요**(igd)

복수접미사 ‘-들’을 5명의 제보자 중 2명(sjs, ohc)은 ‘어린네덜(sjs), ‘데모덜(ohc)’ 등과 같이 ‘-덜’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서울 방언에는 복수접미사 ‘-들’과 ‘-덜’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 2.3 語彙

서울 방언의 어휘는 이른바 중부 방언 중 경기도 방언과 같은 것이 가장 많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방언의 어휘 가운데 경기도 방언에서 쓰이지 않는 변종만을 가려 한국정신문화원의 ‘한국방언자료집 I’(1995)에서 의미에 따라 어휘를 분류한 것을 고려해서 제시하여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3] 서울 방언의 어휘

분류	방언	서울 방언	표준어
음식		승능	승능
		뽕:지	버찌
		설땅	설탕
가옥		설강	살강
		시렁	선반
		안팔	안팍
의복		반죯거리	반질고리
		조고리	저고리
		초마	치마
음식		승능	승능
		뽕:지	버찌
		설땅	설탕
가옥		설강	살강
		시렁	선반
		안팔	안팍
의복		반죯거리	반질고리
		조고리	저고리
		초마	치마
인체		팔뚝	팔뚝
육아		호차리	회초리
인륜		어무니	어머니
		애미	어미
		메느리/메늘애	며느리
		시아미	시아미
경제		마슬	마을
		하르	하루
		두독늬	도독늬
		등장불	등잔불
동물		조개꼭질	조개껍질
자연		겨울/기울	겨울
상태		빨깁다	빨깁다
		빨경다	빨깁다/빨경다
		빨경	빨깁
		새 : 꺼명다	새까맣다/시꺼명다
		겉다	같다

동작	싸오다	싸우다
	내레	내려
	스다	서다
한자어	강 : 경/강경	광경(光景)
	경험	경험(經驗)
	곡통	통곡(痛哭)
	내우	내 : 외(内外)
	부재	부자(父子)
	비우	비 : 위(脾胃)
	석위	석유(石油)
	은체	원체(元體)
	일본	일본(日本)
	입거	입구(入口)
	저냐	전(煎)
	정국적	전국적(全國的)
후태	후퇴(後退)	

‘승능, 호차리, 메느리/메놀애, 게움/기움, 내레, 강 : 경/강경, 내우, 비우, 석위, 은체’ 등은 단모음화로 형태가 바뀐 것이다. ‘뽀 : 찌’는 어두경음화와 원순모음화로, ‘초마, 어무니’ 등은 원순모음화로 형태가 바뀌고, ‘일본’은 ‘일본’이 비원순모음화에 의하여 바뀐 것이다. ‘설강, 빨깁다, 빨깁, 새 : 꺼명다, 꺾다’ 등은 음성모음화로, ‘두둑늬, 스다’ 등은 고모음화로, ‘팔떡, 빨깁다’ 등은 전설모음화로 각각 그 형태가 바뀐 것이다. ‘정국적’은 ‘전국적’이 연구개음화로, ‘입거’는 ‘입구’가 저모음화로 형태가 바뀐 것이다.

서울 방언에는 ‘살강’의 변종으로 ‘설강, 선반’이 공존하며, ‘시렁’을 뜻하는 ‘선반’이 쓰인다. 선반은 한자어 ‘懸盤’에서 온 단어이다. 서울 방언에서 ‘선반’이 지시하는 의미 영역은 ‘살강’이나 ‘시렁’보다 넓다. 서울의 방언에서는 ‘마을’의 고어인 ‘마슬’이 쓰이는데, 경기도 방언에서는 ‘마슬’이 전설모음화에 의하여 변한 ‘마실’이 쓰인다. 또한 ‘싸우다’의 고어인 ‘사호다’가 어두경음화와 음운탈락에 의하여 변한 ‘싸오다’가 존재한다. ‘설땅’은 ‘설당(雪糖)’의 둘째 음절 초성 ‘ㄷ’이 경음화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 3.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방언의 음운문법·어휘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방언의 단모음은 /이(i), 에(e), 애(ɛ), 위(ü), 외(ö), 으(i), 어(ə), 아(a), 우(u), 오(o)/ 10개이다. 이것들 중 /위, 외, 에, 애/ 등 4개는 동요하고 있다. ‘위’와 ‘외’는 이중모음으로 바뀌고 있고, ‘에’와 ‘애’가 합류되어 가고 있다. 장모음 [어:]가 다른 중부 방언에서와 같이 [으:(ɾ:)]로 실현된다. 이중모음 ‘에’는 단모음 ‘에’로 변하고 있으며, 이중모음 ‘의’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는 ‘으’로, 둘째 음절에서는 ‘이’로 실현된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는 ‘의, 에, 으, 이’ 등으로 실현된다.

서울 방언의 자음은 ‘ㄱ, ㅂ, ㅃ, ㅍ ; ㄷ, ㅌ, ㅊ, ㅅ, ㅆ, ㄴ, ㄹ; ㅈ, ㅉ, ㅊ, ㅋ, ㆁ; ㅎ’ 등 19개이다. 서울 방언에서는 음장이 제2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음장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2) 서울 방언에서는 음성모음화, 모음조화, 단모음화(單母音化), 울라우트, ‘이’ 모음순행동화, 원순모음화, 비원순모음화, 경구개음화(硬口蓋音化), 연구개음화(軟口蓋音化), 어두경음화, 고모음화, 전설모음화, 음운 축약, 음운 첨가, 음운 탈락, 체언 말음 ‘ㄷ, ㅌ, ㅊ, ㅍ’ 등의 마찰음화와 무기음화 현상 등이 실현된다. 서울 방언에서는 이른바 ‘k’의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준어의 ‘ㄹ’ 불규칙 용언은 서울 방언에서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3) 주격 조사로는 ‘이/가, 이가, 예가’ 등이 존재하고, 목적격 조사로는 ‘ㄹ/를, 을/을/일’ 등이 쓰이며, 관형격 조사로는 ‘의, 에, 으, 이’ 등이 쓰인다. 부사격 조사로는 ‘에/이/, 에다가/이다가, 에서/이서, (으)루/루다가/ㄹ루다, 한테/한테, 하구/허고/허구, (으)루서, 보덤/보더/보단/보담/버덤/부다, 꺾이/모냥, 구’ 등이 쓰인다. ‘하구/허고/허구’ 등은 직접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나 접속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4) 서울 방언에 쓰이는 연결 어미들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는 ‘-(으)면/믄/므

는, -(으)면섬/면선/문선, -(으)니까드루, -어이, -(으)리라면/리라문/리라문, -(으)라, -(으)리라구/리라구/리라구, -구, -구서, -드키/-뜨키' 등을 들 수 있다.

연결 어미 ‘-(으)면/문/문/문/문/문’ 등은 표준어 ‘-(으)면’과 대응하는 것이고, 연결 어미 ‘-(으)면섬/면선/문선’ 등은 표준어 ‘-(으)면서는’<sup>25)</sup>과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동작을 하려는 주체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러/-라’가 쓰이고, 주체의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르려구/-르려구/-르려구’가 쓰인다. 연결 어미 ‘-고’나 ‘-고서’와 대응하는 ‘-구’나 ‘-구서’가 쓰이고, ‘듯이’와 대응하는 ‘-드키/-뜨키’가 쓰이고, ‘더라도’와 대응하는 ‘-드래두’가 쓰인다. 선어말어미 ‘-더-’와 대응하는 ‘-드-’가 쓰이고, ‘겠-’과 대응하는 ‘-것-’이 쓰이며,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과 대응하는 ‘-든’이 쓰인다.

(5) 보조 용언 ‘버리다’의 변종 ‘빠리다’가 쓰이고, 보조 용언 ‘가지고’의 변종 ‘가지구’나 ‘가주구’가 쓰이며, ‘싫어서’의 변종 ‘십어서’가 쓰이며, ‘보다’의 변종 ‘부다’가 쓰인다.

(6) 서울 방언의 접속사로는 ‘그르니까/그르까/그이까/그까/공까, 그르구, 그르문/그러문, 그르데’ 등이 쓰인다.

(7) 재귀대명사 ‘자기’와 대응하는 ‘지’가 쓰인다. 이것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면 ‘제:, 즈이’ 등으로 실현된다. 표준어 일인칭대명사 ‘저’와 대응하는 것은 ‘즈’이고, ‘저희’와 대응하는 것은 ‘즈히’이고, ‘너’와 대응하는 것은 ‘느’이며, ‘너희’와 대응하는 것은 ‘느:들’이다. 지시대명사 ‘어드, 머/모/무’ 등이 쓰인다. ‘어드’는 ‘어디’의 고형이다. ‘머’는 ‘무엇’의 준말이고, ‘모/무’는 ‘머’의 변종이다. ‘머/모/무’는 보상적 장음화 현상에 따라 장음으로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8) 부사 ‘제일’의 변종으로 ‘지:일’이, ‘실컷’의 변종으로 ‘실컸’이, ‘또’의 변종으로 ‘떠’가, ‘같이’의 변종으로 ‘겘이’가 존재한다.

(9) 청자대우법의 화계가 이른바 ‘해요체’와 ‘해체’로 단순화되어 가고 있다. 서울 방언의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의 청자대우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26) ‘-(으)면서는’ ‘-(으)면서’가 변하여 형성된 것이다.

[표 3] 서울 방언의 청자대우법

서법 \ 화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존대	아주높임	합니다/해요	합니까/해요	하십시오/하세요	합시다/하세요 /하시지요
	예사높임	하우/해요	하우/해요	하우/하소/해요	하우/해요
평대		하우/해	하우/해	하우/해	해
하대	예사낮춤	하네/해	하나/해	하계/해	하세/해
	아주낮춤	한다/해	하니/해	해라/해	하자/해

(10)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실현에 제약을 덜 받는데,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제약을 많이 받아 주로 장형 부정문이 실현된다.

(11) 서울 방언의 어휘는 이른바 중부 방언 중 경기도 방언과 같은 것이 가장 많다. 서울 방언의 어휘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승능, 설땅, 반죽거리, 마술, 하르, 게움/기움, 겹다, 석위, 곡통, 저너’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오늘날 서울 방언은 전국 방언의 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실현되는 언어의 여러 현상이 실현되고 있다. 서울은 여러 지방 사람들이 서로 교섭을 하고, 텔레비전 방송 언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순수한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제보자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지역 방언을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른바 ‘NORMs’라는 제보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다른 지역 방언과 비교 연구를 하고, 서울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서울 방언의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주제어】 방언, 음운, 문법, 어휘, 변종

## 참고 문헌

- 權在善(1983), 서울말의 口蓋音化 研究, 大邱語文論叢1.
-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 국립국어연구원(1998),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I).
- 국립국어연구원(2000),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II).
- 김계곤(2001), 경기도 사투리 연구, 박이정.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선철(1997), 국어 억양의 음성학, 음운론적 연구-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황(1978),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19-420.
- 김영황(1982), 조선어방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朴鍾守(1982), 서울方言 音調型 記述-慶南方言 音調型 記述法을 중심으로 -진주문화 3.
- 이병근(1971), 현대 한국 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7-2.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국어학회.
- 이석주이주행(1994, 2000), 국어학개론, 대한고과서주식회사.
- 李崇寧(1959), 現代서울말의 accent의 考察-특히 condition phonetique와 accent의 關係를 主로 하여 -, 서울대학교 논문집 9.
- 이주행(1990ㄱ), 충북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평사 민재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 이주행(1990ㄴ), 전북방언의 상대경어법 연구, 돌곶 김상선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이주행이규항김상준(1998), 표준 한국어 발음 사전, 지구문화사.
- 이주행(2000), 한국어 문법 연구<개정판>, 중앙대출판사.
- 이주행(2001),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판>, 월인출판사.
- 李炫馥(1971a),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語學研究 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李炫馥(1971b), 현대 서울말의 母音體系, 語學研究 7-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李炫馥(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語學研究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현복(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 연구, 언어학 2.
- 이호영(2000), 서울말과 표준발음법, 서울말 연구 1, 박이정.
- 崔鶴根(1963), 서울 方言圈의 形成과 서울 方言에 對해서, 향토서울 14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韓國方言資料集 I 京畿道篇.
- 한영목(1992), 충남방언의 고찰,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 황대화(1999), 조선어 방언 연구, 료녕민족출판사.

- 황대화(2001), 어중자음 ‘ㄱ’에 대하여, 조선학(2000), 중앙민족대학조선학연구소, 민족출판사. pp.29-35.
- 服部四郎(1991), 現代ソウル方言において起こりつつある母音の通時的變化(續編), 月刊言語 14-8, 大修館書店.
- Umeda, Hiroyuki(1957), The Phonetic System of Modern Korean, 言語研究 32.
- Umeda, Hiroyuki(1994a), Age Differentiation of the Vowels in the Seoul Korean : Acoustic Measurements. アゾ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48-49.
- Umeda, Hiroyuki(1994b), 韓國語の母音, 言語研究 106.

## 【Abstract】

## A Study on the Dialect of Seoul in Korea

Lee, Ju-haeng

In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phonological, grammatical and lexical variation of Seoul dial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onophthong /ü/, /ö/, /e/ /ε/ etc. are changing at these days. The vowel /ü/ is changing into diphthong /wi/ and the vowel /ö/ is changing into diphthong /we/. The vowels /e/ and /ε/ have been merged into /E/.

(2) The diphthong /ye/ has been changed into monophthong /e/. The diphthong /uj/ has been changed into monophthong /u/ in the first syllable and /i/ in the second.

(3) The length has been disappeared.

(4) In the Seoul dialect k-palatalization is not realized.

(5) The ru-irregular verbs of the standard language are conjugated regularly in this dialect.

(6) There are ‘e, u, i’ etc. as the variants of possessive case ‘uj’ in this dialect.

(7) There are ‘bodeom/bodeo/bodan/bodam/beodeom/buda’ etc. as the variants of comparative case ‘boda’.

(8) There are ‘-(u)meon/(u)mun/(u)munun, (u)munseon, -(u)nikkaduru, -eoi, -(u)llameon/(u)llamun/(u)llaemun, -(u)ra, -(u)llagu/(u)llyeogu/(u)llyagu, -gu, -guseo, -duki/-ttuki’ etc. as the particular ones among the variants of connective ending.

(9) Reflexive pronoun ‘ji’, first personal pronoun ‘ju’ corresponding to ‘jeo’, and second personal pronoun ‘nu’ corresponding to ‘neo’ etc. are used.

(10) Adverb 'jiil' is corresponded to 'jeil' and 'sikeon' is corresponded to 'silkeot'. Adverb 'geochi' in this dialect is the variant of 'gachi'.

(11) The speech level of Seoul dialect has being simplified as haeyo style and hae style.

(12) Sentences that predicate is adjective mainly are realized as long negative sentences.

(13) The vocabulary of Seoul dialect are similar to the vocabulary of Kyeong-gi-do dialect among Junbu dialects. There are 'sungnung, seolttang, banjukkeori, masuŋ, haruŋ, geul/giul, geotta, seogwi, goktong, jeonyeo' etc. as the particular ones among the vocabulary of Seoul dialect.

**【key word】** dialect, phonemic, grammar, vocabulary, variation